



창간기획 | 프로야구 10개 구단 대표들이 말하는 '팬 퍼스트와 역할론'

신생팀 SSG "야구장 맛집 보여주겠다"



NC 다이노스 황순현 대표

"야구 자체가 목적인 구단이 지향점! 야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여준다."



두산 베어스 전동 대표

"우리의 상징은 허슬! 포기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건 선수들의 매력이자 습관."



KT 스포츠 남상봉 대표

"팬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팬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 목표!"



LG 스포츠 이규홍 대표

"원년부터 수도 서울을 연고지로 해 가장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은 명문구단!"



키움 히어로즈 허홍 대표

"우리는 야구전문기업! 타 구단에서 못하는 다양한 시도도 적극적이다."



KIA 타이거즈 이화원 대표

"인간적 요소가 담기고 배려와 존중하는 문화로 소통하는, 선을 같은 야구가 목표!"



롯데 자이언츠 이석환 대표

"가장 두렵고 열정적인 팬 베이스! 세대를 거쳐 형성된 강력한 팬덤과 호흡한다."



삼성 라이온즈 원기찬 대표

"전통의 명가가 진부한 표현? 이에 어울리는 자격 갖춘 명문 삼성!"



SSG 랜더스 민경삼 대표

"고객경험에 차별화된 노하우. 야구장 내 음식부터 상품까지 기대하세요."



한화 이글스 박찬혁 대표

"강한 애정과 변치 않는 응원 보내주시는 팬들에게 진정성 보여드리겠다!"

LG·KT·두산 "팬이 구단의 지향점"
롯데 "팬과 함께 즐기는 야구 자랑"
LG "관중수 1위, 가족 마케팅 보답"
NC "우린 야구 자체가 목적인 구단"
SSG "고객서비스 차별화된 노하우"

프로야구는 자타공인 국내 최고 인기스포츠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과 맞물려 이제는 생존까지 걱정하는 처지다. 리그 구성원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길을 찾아야 할 시기다.

10개 구단 대표이사는 각 구단의 얼굴이자 결정권자인 동시에 KBO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각 구단은 물론 KBO리그 전체가 나아갈 방향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13주년을 맞아 10개 구단 대표이사에게 팀별 비전을 묻는 동시에 올해 KBO

리그의 화두인 '현장과 프런트의 조화'에 대한 노하우도 구했다.

● "팬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한다"

첫 질문으로 지향점과 추구하는 가치를 묻자 10개 구단 대표이사 모두 '팬 퍼스트'를 꼽았다. 전풍 두산 대표는 "팬이 없으면 구단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기찬 삼성 대표는 "프로야구는 사회의 구성요소이자 많은 사람들 삶의 일부로서 자리 잡았다"며 야구가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규홍 LG 대표, 남상봉 KT 대표는 팬을 '고객'으로 표현했다. 기업이 고객의 마음을 얻듯, 야구단도 팬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그룹 경영이념인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인간 존중의 경영'을 통해 프로스포츠산업을 선도하는 명문구단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남 대표 역시 "우리 고객인 팬들에게 사랑받는 구단이 목표"라고 말했다.

팬 베이스가 확실하다고 평가받는 팀들은 '팬'이 수단이자 목표다. 전풍 두산 대표는 "두산 역사의 산증인인 원년 팬부터, 원정경기까지 와주는 열혈 팬, 이제 막 야구를 접한 어린이 팬까지, 우리 구단은 모든 팬들이 소중하다. 팬과 함께하는 감동, 선수들이 오고 싶은 팀, 궁극적으로는 명문구단이 지향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환 롯데 대표는 "타 구단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야구문화와 강력한 팬덤이 우리 강점이자 자산이다. 롯데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세대를 거쳐 형성한 강력한 팬덤이 있다"고 자랑했다. 자연스럽게 세일즈 포인트 역시 함께 즐기는 문화와 로열티로 꼽았다. 이규홍 LG 대표 역시 "프로야구 원년부터 수도 서울을 연고지로 하며 가장 많은 팬들의 열성적 지원을 받았다. 이 덕에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100만 관중을 돌파하며 한국프로스포츠 최초 3000만 누적 관중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KT 새 외국인타자 조일로 알몬테가 23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시범경기 LG전에서 3타수 3안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알몬테는 일본으로 떠난 지난해 KBO리그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멜 로하스 주니어의 공백을 메워야 할 중책을 맡고 있다. 수원 | 주현희 기자 leth1147@donga.com

로하스의 빈자리 채워가는 'KT 터보엔진'

3번 강백호 시범경기 '7할타율' 4번 알몬테 '스위치 히터' 신공

LG와 시범경기서도 나란히 2안타·3안타

KT 위즈 중심타자 강백호(22)와 조일로 알몬테(32)가 시범경기에서 맹타를 두르며 일본으로 떠난 멜 로하스 주니어(31·한신 타이거즈)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다.

강백호와 알몬테는 23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시범경기에서 각각 3번타자 1루수, 4번타자 좌익수로 선발출장했다. 강백호는 3타수 2안타, 알몬테는 3타수 3안타로 날카로운 타격감을 뽐낸 뒤 5회말 나란히 교체됐다. 장타는 없었지만, LG 투수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했다.

특히 알몬테는 스위치히터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1회에는 우타석에서 LG 좌완 선발 남호의 3구째를 잡아당겨 좌전안타를 뽑아냈다. 3회에는 좌타석에서 바뀐 우완투수 송은범으로부터 우전안타를 빼앗았다. 5회에는 다시 오른쪽 타석에 들어서 좌완 진해수에게서 중전안타를 뽑았다.

강백호는 3차례 시범경기에서 타율 0.750(8타수 6안타), 시범경기 들어 첫 멀티히트를 신고한 알몬테는 타율 0.556(9타수 5안타)으로 궤조의 페이스를 뽐냈다. 둘 다 아직 홈런은 없지만 중심타선에서 충분히 제 몫을 해주고 있다. 정규시즌에도 둘은 3·4번 타순에 고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KBO리그 페넌트레이스 최우수선수(MVP)인 로하스가 떠난 KT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프링캠프에서 다양한 준비를 했다. 타율 0.349, 47홈런, 135타점을 기록한 주포의 빈자리를 타선으로만 메울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투수력을 알차게 보강하는 등 여러 대비책을 마련했다. 야수들은 로하스의 공백에 따른 부담을 조금씩 나눠 맡기로 의기투합했다. 그리고 이날 KT 타선은 강백호, 알몬테 등 중심타자들뿐 아니라 다른 타자들까지 가세해 장단 15안타를 뽑아냈다. 4-4 무승부로 끝난 가운데 KT가 거둔 수확은 적지 않은 한판이었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2·3면
수원 |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2021.04.03.
opening day

KIA VS 두산 14:00 | 롯데 VS SSG 14:00 | LG VS NC 14:00 | 한화 VS KT 14:00 | 삼성 VS 키움 14:00

kbo.official KBO